

이야기가 있는
은평 역사문화 기행

이야기가 있는 은평역사문화 기행

글 쓴 이 : 박 상 진

발 행 일 : 2014년 8월 21일

발 행 처 : 은평구립도서관

은평구 통일로 78가길 13-84
02) 385-1671~4

비매품

“이야기가 있는 은평 역사문화 기행”

일 시 : 2014년 8월 24일(일) 10시-12시

강 사 : 박 상 진(은평향토사학회 회장)

1. 은평구의 위치와 발자취 알아보기

(1) 지리적 위치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은평구는 동경 126도와 북위 37도에 위치한 비교적 온후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지형은 임야, 분지,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지맥이 한남정맥으로 이어져 서울의 진산이 되고, 다시 태백산 줄기의 광주산맥으로 이어지는 북한산을 동쪽 병풍으로 하고, 남쪽의 한강을 바라보며 서서히 지세가 약화되는 지역이다. 또 주위에는 북한산 지봉인 남장대(715m)를 비롯하여 비봉(510m), 백련산(215m) 봉산(209.6m) 앵봉산(237.5m) 등의 여러 봉우리들이 도심을 중심으로 둘러 있고, 계곡으로부터 발원된 깨끗한 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은평의 중심부인 불광천을 흘러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북한산 노적봉 일원의 모습

서울의 진산이라 불리는 북한산은 은평구, 도봉구, 성북구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있는 높이 836.5m의 산으로 서울 부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수도 서울의 진산이자 종산이다.

화강암으로 된 북한산은 일명 삼각산(三角山), 부아악(負兒岳), 화산(華山), 화악(華岳), 북정산(覆鼎山), 북종산(覆鍾山) 등으로도 부르며, 최고봉인 백운대를 비롯하여 인수봉과 만경대(일명 국망봉)의 세 봉우리가 양주 땅에서 바라보면 마치 세 뿔처럼 솟아 있으므로 삼각산이라 하였다. 부아악이란 인수봉의 모습이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현재 은평구 행정구역 내의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북한산성의 정문인 대서문과 진관사, 삼천사, 용암사 등 전통사찰이 산재해 있어 주민들의 즐겨 찾는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북한산은 오래 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서울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고, 산책로, 약수터, 암벽타기, 등반 등을 할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인들은 이 산과 도봉산 등을 함께 일컬어 ‘서울의 축복’, ‘서울의 은총’이라고 말한다.

또한 전체면적의 약 53.5%를 차지하는 녹지지역의 대부분은 북한산 국립공원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로 활용보다는 서울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허파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규모 공장 등 공해배출원이 없고, 녹지비율이 높은 은평구는 서울시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오염밀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은평구는 백련산과 불광천이 서대문구와 경계를 이루며, 고양시 덕양구와는 창릉천이 또한 지형지물에 의해 북쪽의 경계를 이룬다. 은평구의 대표적인 하천인 불광천은 북한산의 봉우리 중 하나인 비봉에서 발원하여 은평구 대조동을 끼면서 남류하다가 서대문구 북가좌동과 은평구 수색동의 경계를 이루게 된다. 구 동쪽경계의 북한산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내부의 낮은 지역은 비교적 평탄한 개활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불광동, 대조동, 역촌동, 응암동, 신사동, 갈현동 등의 시가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표고 50m 내외 지역인 시가지지역은 5° 이하의 경사지를 가진 평탄지가 전체면적의 40.6%인 12.07km²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은 25° 이상의 급경사지로 되어 있다.

은평구의 지질은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화강암은 우리나라 최대의 지각변동이라 할 수 있는 중생대(中生代) 쥐라기의 대보조산운동에 의해 형성된 대보 화강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화강편마암과 호상편암 등이 국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불광천 유역의 지질은 면적비로 볼 때 충적층이 14.7%이고 흑운모 화강암이 42.4%이며 선상 흑운모 편마암이 26.1%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¹⁾

(2) 지리적 특징

<은평의 물형론>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로 변에 위치한 은평구의 구조(區鳥)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다. 은평구의 지형적 특성을 공부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보자.



국구비천명의 서울시 지역



국구비천명의 서울시 지역2

1) 「은평구의 자연환경」 『은평구지』, pp19~27. 2001 참조.
민경길, 「1. 북한산의 옛 이름들」 『북한산1』, 집문당, 2004 참조.

알다시피 한반도는 풍수지리 물형론(物形論)으로 설명할 때 맹호비상형(猛虎飛翔



근역강산맹호기상도



비둘기 형상의 서울시 지도

形)이다. 하지만 일제시대 일본인들은 한국민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토끼형으로 왜곡하였었다. 이에 반해 은평구는 물형론으로 볼 때 국구비천형(國鳩飛天形)이라고 한다.

어쨌든 서울시 위정자들은 서울의 지형을 비둘기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은평구 구과 발지역의 통일로를 고양시 동산동과 원칙 없이 이상한 경계로 구분해 놓았다. 자 어떠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사진을 보도록 하자.

(3) 자연 환경

은평구는 서울의 최서북단 지역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생활에 이로움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수도 서울 외곽의 요충지가 되어, 고대로부터 나라에서도 중히 여겨왔던 천혜의 생활터전이다. 또한 북한산(삼각산 : 836m)이 시가지 우측에 남북으로 접해 있고, 그 진산을 중심으로 높고 낮은 산들이 평지를 둘러싸고 있어 시가지 전체는 장방형의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현재 서울 도심으로부터 약 7km정도 떨어져 위치한 은평구는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통일로를 비롯한 증산로와 수색로 등 주요 간선도로들이 방사선 모양으로 이어져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판문점과의 거리가 40km로 지역 방위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청되는 서울의 관문으로 21세기 통일을 대비한 통일 한국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과 인접하여 동쪽은 종로구, 남쪽은 서대문구, 마포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과 북쪽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와 접해 있다.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는 대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남북회담 왕래도로였던 통일로가 은평구의 행정 및 생활권 중심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서오릉로와 수색로 등이 구 경계를 따라 이루어져 주변 지역과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주요 외곽 교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일산 신도시로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과 북방교역을 위한 경의선 철도와 연결



대서문의 모습

되는 지하철 6호선의 개통으로 지역개발에 한층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은평구의 면적은 약 29.7km²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4.9%이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넓다. 인구는 약 50만명이고, 행정동으로는 2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주거지역은 13.45km²(45.3%)이고 상업지역은 0.345km²(1.2%)이며, 그 밖에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녹지지역이 15.91km²(53.5%)인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다. 은평구에서는 진관내동과 외

동이 19.3%, 19.4%로 전체 면적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시가지 주변이 북구 가운데 10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며 토박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구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가 지역은 녹번동 삼거리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인접하고 있는 응암지구가 형성시가지이고 북쪽으로 불광동, 연신내지구는 신흥 시가지이며, 수색지구는 은평구 서쪽에 위치하여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²⁾

(4) 은평구 역사

서울의 서북쪽에 위치한 은평구는 산수가 수려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예로부터 저마다 살기를 원했던 천혜의 생활터전이다.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북한산)을 중심으로 높고 낮은 산들이 평지를 둘러싸고 있어 농경생활에 이로움은 물론, 북한산성과 양철평 교장 등 군사적으로도 서울 외곽의 요충지가 되어, 고대로부터 나라에서도 중히 여겨왔던 곳이다.

또 통일로는 과거 중국을 오가던 사신이나 북쪽 국경의 소식을 전달하던 파발로인 서발(西撥)의 간선도로로 교통의 요지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다.

이러한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이미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한 시기인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을 응암동 출토의 청동 투겁창(銅矛)³⁾ 유물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후 기원전 18년에는 백제(百濟)를 세운 온조(溫祚)와 비류(沸流)가 북한산의 인수봉, 백운봉에 올라 이곳을 나라로 세울 땅으로 살피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후 백제

2) 「은평구의 자연환경」 『은평구지』, pp19~27. 2001 참조.

3) 응암동 동모(銅矛 : 청동투겁창)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에서 출토된 한국식동모(韓國式銅矛)로 요령식동모(遼寧式銅矛)와 달리 모신(矛身)에서 직선상의 인부(刃部)와 관부(關部)가 서로 각(角)을 이루며 만나고, 이 부분까지 등대가 갈려진 유공식(有孔式)이다. 공구(孔口)에 좁은 돌대(突帶)가 돌려져 있으며, 공구(孔口) 바로 위쪽 측면에 1개의 못구멍(釘孔)이 있어 자루를 끼운 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동모는 대체로 정문경(精文鏡)의 발생과 거의 병행하는 시기부터 제작되어 혈구(血溝) 수의 증가, 유문식(有文式)의 등장, 모신부(矛身部)의 장대화(長大化) 및 환이(環耳) 부착 등의 과정을 거쳐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 초기까지 의기(儀器)로 남다가 철모(鐵矛)로 대체되면서 소멸하게 된다. 길이 18.6cm인 초기철기시대 유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는 북한산 아래 하북위례성에 도움을 정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이러한 백제의 역사적 사실들은 은평구와 주변 지역에서 발굴된 토기 등으로 증명되고 있다. 은평이 위치한 한강 하류 유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서로 통제·수비하던 군사적 요충지이며, 이러한 영토의 중요성 때문에 삼국의 세력이 늘 충돌하던 격전지였다.



응암동 출토 투검창

한편 백제에 이어 553년 신라의 영토가 되어 신주(新州)라 불렀다가, 668년 삼국통일 후 한산주(漢山州)가 되었다. 이어 고려 태조 23년 양주(楊州)로 고쳤고, 조선조에 들어와 태조 5년(1396) 4월에 한양을 한성부라 개칭하여 나라의 수도로 삼고, 한성부를 5부(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와 52방坊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개편하였다.

북부는 5부 중의 하나로서, 도성 안에 광화방 · 양덕방 · 가회방 · 안국방 · 관광방 · 진정방 · 순화방 · 명통방 · 준수방 · 의통방 등 10개 방이 있었다. 그 후 큰 변화가 없다가 영조 때에 와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영조 27년에 반포된 수성책자(守城冊子) 『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의하면 명통방을 폐지하고 성 밖에 상평방 · 연은방 · 연희방을 신설하여 12개 방이 되었다.⁴⁾

은평지역은 이 때 북부에 속하게 되었고, 영조 27년에 북부 중에서도 성외(城外)인 연은방(延恩坊)⁵⁾과 상평방(常平坊)⁶⁾에 속하게 되었다. 구의 명칭인 은평(恩平)이란 이름도 바로 이 두 방(坊)의 이름에서 한 자씩을 따온 것이다.

1911년 4월 1일에 경기도령 제3호로서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개정하여 도성 안을 5부 36방으로 하고 도성 밖을 8면으로 하는 5부8면제를 실시할 때 연은방과 상평방은 경성부 은평면으로 연희방은 경성부 연희면으로 바뀌어 북부에서 제외되었다.⁷⁾

합방 후인 1914년 3월 1일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으로 되었으나, 해방 후 서기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 제161호에 의해 은평면의 전 지역이 다시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자 서대문구에 소속되어 신설된 은평출장소의 관할하에 있었다.⁸⁾

4) 북부 [北部] (서울지명사전, 2009.2.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5) 연은방(延恩坊) : 조선 영조 때 성 밖에 설치한 한성부 북부 12방 중의 하나로서, 방 안에는 훈창계의 효자동 · 사기동 · 신둔, 흥제원계의 내동 · 외동 · 답동 · 백련동, 갈현계의 궁동 · 좌월동 · 효경동 · 박석동, 사계의 노지동 · 구산동 · 토정동 · 대조동, 불광리계의 불광리 · 박석동 · 사정동 · 관동, 말흘산계의 와산동 · 응암동 · 골반동 · 녹현동, 신사동계의 신사동, 역계의 역촌동, 양철리계의 녹현이 있었으며,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흥제동 · 흥은동 · 구산동 · 역촌동 · 대조동 · 신사동 각 일원과 갈현동 · 불광동 · 구기동 · 녹변동 · 응암동 각 일부에 해당한다.

출 전 : 연은방 [延恩坊] (서울지명사전, 2009.2.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6) 상평방(常平坊) : 조선 영조 때 성 밖에 설치한 한성부 북부 12방 중의 하나로서, 조선시대 풍년에 곡물이 흔하면 값을 올려 사들이고 흉년에 곡물이 귀하면 값을 내려 팔아 물가를 조절하고 또 흉년이 들 때 기민 구제를 위한 상평창을 관리하던 상평청이 있던 데서 방 이름이 유래되었다. 성 안에는 경리청계의 무계동 · 부암동 · 백석동 · 홍지문내동 · 삼지동 · 구기동 · 응암동 · 왕정평 · 신영동 · 남문동, 선혜청계의 평창, 금창계의 중곡, 어창계의 상곡 · 중곡 등이 있었으며,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부암동 · 홍지동 · 신영동 · 응암동 · 구기동 · 평창동 각 일원에 해당한다.

출 전 : 상평방 [常平坊] (서울지명사전, 2009.2.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7) 북부 [北部] (서울지명사전, 2009.2.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연신내 일대 전경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구파발리와 진관내·외리를 서울시로 편입하였고, 197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해 서대문구에서 분구하여 출장소를 폐지하고 은평구(15개동)가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8년 5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다음 해 9월 1일 이후 행정동 20개동, 법정동 13개동으로 늘어났다. 2007년 8월 13일 법정동인 구파발동, 진관내·외동이 하나의 진관동으로 통합되면서 법정동 11개동, 행정동 19개동으로 되었다.

있다가 2008년 6월 불광3동, 응암4동, 역촌2동이 인근동과 통폐합되어 11개 법정동에 16개 행정동(주민센터)이 되었다.⁹⁾

1. 은평구의 문화와 예술

(1) 은평구의 문화

1) 우리 고장엔 어떤 민속놀이가 있었을까?

이번 장에서는 우리 고장의 민속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과거 중국으로 가는 사행로(使行路)였던 통일로 일대에는 ‘구파발 산대놀이’, ‘구파발 꼭두각시 놀음’ 공연이 이어져왔고, ‘구파발 단오놀이’가 해방 후에도 행해져 왔으나, 산업화와 핵가족제도로 인해 현재 그 맥이 끊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고장 민속놀이의 실체를 이해하고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구파발 산대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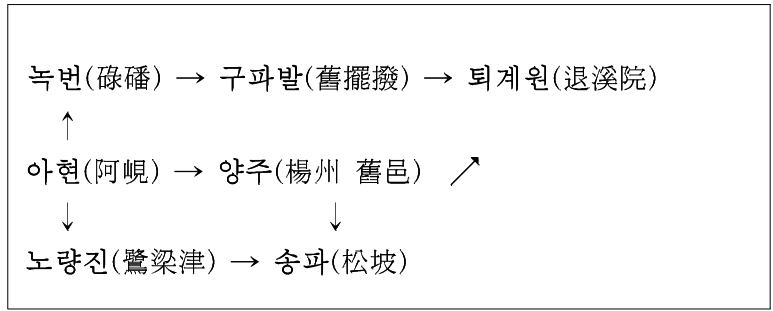
구파발 산대놀이는 구파발 일대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던 탈춤의 하나인 서울 본산대놀이의 한 유파이다. 산대놀이란 서울 근교에서 전승되던 가면극을 말한다.

조선조에 한양(오늘날의 서울)에는 본산대(本山臺)놀이라 하여 탈춤의 여러 유파가 있었는데, 최상수는 산대놀이를 아현(애오개), 구파발, 녹번, 노량진, 송파, 양주의 산대놀이를 꼽고 다음과 같은 전파경로를 밝히고 있다.

8) 이재곤, 「은평구」, 『서울의 전래동명』, p.388. 1994 참조.

9) 「은평구의 발자취」, 『은평구지』, pp28~41. 2001 참조.

「은평의 유래와 변천사」, 『우리고장 생활안내(2011)』 은평구청 간행 참조.



또 이두현은 산대놀이로 녹번리, 애오개, 노량진, 퇴계원 사직골 딱딱이패를 꼽았다. 대구대 박진태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산대놀이의 거주지로 한양 도성 안에 사직동(社稷洞), 북방에 녹번리(礮礮里 : 구과발에서 흥제원으로 이전), 서방에 애오개(阿峴), 남방에 노량진(鷺梁津), 동방에 퇴계원(退溪院)이 위치하여, 사직단(社稷壇)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의 관문(나루터, 고개, 역원)에 거주하면서, 궁중 행사(季冬大儺儀, 廟還宮, 行幸, 安胎, 宴樂歡娛, 迎使 등)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구과발 산대탈(머중)



구과발 산대탈(소무)

과거 구과발 산대놀이의 연희자(演戲者)로는 윤희중(尹熙重, 1840~1923)이 유명한데, 그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인 ‘송파산대놀이(松坡山臺놀이)’를 복원한 인물로 유명하다.

즉 연희자의 한사람인 허호영(許浩永)의 말에 의하면 약 200년 전부터 송파산대놀이가 창성되었으나 중도에 쇠진되었던 것을 1900년부터 송파에 거주하는 허윤(許鈞, 1867~1935)에 의해 구과발 본산대 연희자 윤희중을 초빙하여 재건하고, 그 뒤 연중 행사로 정월 보름·단오·백중·추석에 놀았는데 7월 백중에는 크게 놀았다는 것이다. 1924년에는 큰 규모의 산대놀이 모임을 송파에서 열었는데 이때에 구과발·아현·퇴계원·의정부·노량진 등지에서 20여명의 이름 있는 연희자들이 모였다고 한다.

또한 1930년대에 필사된 양주별산대놀이 김지연본의 제보자인 조중순은 양주별산대놀이 또한 구과발 본산대놀이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고 한다.

현재 구과발 산대놀이에서 사용되던 탈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구과발 산대놀이를 복원한다면 우리 지역의 큰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계원 산대는 바로 구과발 산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퇴계원 산대놀이가 1998년 관계자 여

리 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복원되었다고 한다. 또 2002년 9월 30일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내 특설무대에서 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원장 홍헌일) 주관으로 애오개 산대를 복원한 ‘서울 본산대놀이’ 시연행사가 있었고, 2003년에는 본 행사를 재연한 바 있다.



구파발 산대 연희자와 탈제작자(1942년)
연희자 김창엽(좌), 탈 제작자 진성복(중)

고무적인 일은 2007년 3월 필자의 요청에 의해 구파발 산대놀이에 사용되던 탈 12점이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양종승 전 연구관(현 샤머니즘 박물관장)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또 최근에 필자는 작고한 민속 학자 최상수 교수의 논저 속에서 1935년에 촬영된 구파발 산대탈 20점(목제탈 6점, 바가지탈 14점)과 1941년 촬영된 구파발 산대탈 25점, 연희 장면 4컷(노장 중과장 장면 2컷, 원숭이놀이 장면 2컷), 연희

자 고 김창엽(金昌燁)옹, 가면 제작자 고 진성복(陳聖福) 옹과 함께 찍은 사진 1컷을 확인한 것이다.

만약 구파발 산대놀이나 녹번이 산대놀이가 복원된다면 은평구를 대표할 또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리라 생각한다. 구파발 산대놀이가 하루 빨리 복원되어 은평구민과 서울 시민의 민속놀이로 사랑받을 날을 고대해 본다.

◎ 구파발 꼭두각시 놀음

과거 우리 지역의 민속놀이로는 구파발 산대놀이 외에 ‘구파발 꼭두각시놀음’이 유명했다.

구파발 꼭두각시놀음은 마을 단위로 전승되던 인형극이다. 인형을 조정하는 인형사는 전업이 아닌 부업으로 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마을 제사나 특별한 잔치날에 공연을 놀아주거나 겨울철 등 농한기에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공연하였다고 한다.



꼭두각시 놀음 공연장면

이러한 사실은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꼭두각시놀음의 전승지역을 조사한 일본인 학자 미타무라도비우오(三田村 鷹魚)의 다음 논문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는 1932년 서울에서 구파발 꼭두각시놀음을 조사하고 그 전승집단과 연행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파발의 인형은 마을의 공유물로서 그 공연에 대하여 익숙하다. 현재 인형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없고 무엇인가 본업을 지닌 이외에 인형의 조종은 부업으로 하고 있다. 구파발의 패거리도 마을의 제례나 특별한 잔치날에 공연을 다니는 이외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돌아다니며 공연한다. 그리고 이런 것은 비단 구파발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한다.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의 각 지방에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팔도의 여러 곳에 인형놀이의 패거리가 있음을 알겠다.¹⁰⁾

◎ 구파발 단오놀이



새장골 유래비(연서시장 입구)

과거 구파발 지역에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5월 5일 단오절이면 단오놀이가 성대하게 행해졌다고 한다.

이날 인근 주민들은 연신내(延曙川, 오늘날의 불광천) 개천 근처로 몰려들어 씨름, 그네뛰기, 활쏘기 경연을 구경하느라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활쏘기는 내 건너편에 과녁을 향해 활을 쏘았다고 하며, 그래서 사장골(射亭洞)의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한편 여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에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

또 셋강가에 커다랗게 기둥을 세우고 강쪽을 향해 그네를 탔다고 한다. 그네를 타는 곳은 땅이지만 힘껏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면 강물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되어 무섭기도 했지만 매우 신이 났다고 한다.

그 중에서 그네뛰기와 씨름은 단오행사 중 특히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 한다.

2) 우리 고장의 전설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엔 어떤 전설(傳說)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까요?

여기서는 불광동의 밥할머니 이야기, 진관동의 여기소(女妓沼) 전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 치마부대를 지휘한 밥할머니

조선 중종 39년(1544) 지금의 불광동에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집안에서 한 여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임진왜란 행주산성 전투에서 여인들을 지휘하여 행주치마와 노적봉 전설을 낳게 한 밥할머니랍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기뻐한 박선비는 곧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이는 첫눈에 보기에 보통 아이보다 체구가 남달리 커보였어요.

박선비는 아이의 비범한 외모로 보아 분명 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며 곧 자신의 아내

10) 三田村鳶魚, “朴僉知가 가르치는 人形製作過程,” 서연호, 『꼭두각시놀이』, 129면.

에게 진위를 물었어요.

“아들이오, 딸이오?”

“송구하옵니다, 서방님. 딸이옵니다.”

부인이 힘없이 대답하며 고개를 떨궜어요.

“너무 심려마시구려.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될 게 아니오. 고생하셨으니 오늘은 편히 쉬시구려.”

박선비는 아이를 낳느라고 고생한 부인을 위로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총명하여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고 어른스러워보였어요. 항상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도 그 뜻을 거스리는 일이 없었으므로 부모님과 동네 주민들의 칭찬을 들었네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 도 늘 국가(國家)와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생활하였어요.

어느덧 아이는 성큼 자라 필대로 핀 한 송이 꽃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아버지인 박선비는 나이 20세가 되어 딸의 혼기(婚期)가 차자 곧 이웃 마을에 있는 토호이자 명문가인 남평문씨(南平文氏) 집안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남편의 이름은 문옥형(文玉亨)으로, 한성부(漢城府) 북부(北部) 연은방(延恩坊 : 城外) 불광산계(佛光山契 : 지금의 불광동)에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만석지기 부호(富豪) 집안이었어요.



밥할머니 석상(동산동 능묘통이공원)

할머니는 시댁이 워낙에 부유한 집안이라 부족한 것이 없었고, 남편인 문옥형과의 사이에는 외아들 문천립(文天立)을 두고 있어서 결혼생활은 행복하기만 하였답니다.

하지만 평소부터 검소함이 몸에 밴 할머니는 가끔씩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해요.

시집은 후로부터 사랑으로써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정성을 다해 시부모와 남편을 공경하였으며, 근검(勤儉)으로써 집안을 다스리니 당시 이웃 마을까지 효부(孝婦)가 나왔다고 칭찬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선조 25년(1592년) 평온한 마을에 뜻하지 않은 시련이 몰려왔어요. 그것은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임진왜란이라는 왜적의 대규모 침략이었답니다. 당시 49세의 장년이었던 밥할머니는 피난짐을 꾸리던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왜적과 싸울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남편에게 집안의 곡식을 조선군의 군량미로 사용하려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산속 동굴 속으로 옮겨 보관하게 했답니다.

당시의 임금님이신 선조는 피난 중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원병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니 명나라 조정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결국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의 간청으로 원병을 파병하기로 결론이 났어요.

이에 따라 명나라 신종(神宗) 황제의 명을 받은 제독 이여송(李如松)은 그해 12월 8일 편성을 완료하고 방해어왜총병관(防海禦倭總兵官)으로 4만 1천명의 주력군을 이

끌고 25일 압록강을 건너왔답니다.

이듬해 1월 6일 평양성 밖에 집결하여 조선군 사령관인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이 거느린 약 1만명의 조선군과 함께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거느리고 있는 약 1만 5천명의 왜병과 치열한 접전 끝에 마침내 9일 평양성(平壤城)을 탈환했어요.

25일에 개성(開城)에 입성한 이어송은 여러 장수들을 불러놓고 한성(漢城)을 수복할 진중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장수가 속히 서울을 치자는 급진론을 폈고, 조선의 도체찰사 유성룡(柳成龍) 또한 속히 한성을 탈환하기 위해 출성할 것을 요청하자 그는 한성 탈환을 위해 남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먼저 명나라 장수인 부총병 사대수(查大受)가 경기방어사 고언백(高彦伯)의 길 안내를 받으면서 선발부대로 군사를 거느리고 25일 과주에서 서오릉의 창릉(昌陵 : 예종의 능) 방면으로 나갔다가 왜장 가토오 미쓰요시(加藤光泰)와 마에노 마가야스(前野長康) 등이 거느린 적의 수색대와 충돌하게 된답니다. 사대수는 불시에 기습을 감행하여 미륵원(彌勒院) 앞 싸움에서 왜적의 목 130여 급을 벤 후 기병 2,3백기를 이끌고 적과 싸우다가 연서역(延曙驛)¹¹⁾에서 여러 겹으로 포위되고 만답니다.

그때 건장한 6척 장신으로 통이 큰 여장부였던 밥할머니는 남편에게 밤중에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북한산 노적봉을 짚으로 둘러 노적가리처럼 위장하게 했어요.

이튿날 낮에 밥할머니는 함지박을 이고 창릉천(昌陵川)¹²⁾으로 갔어요. 그때 마침 왜병들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멈, 대체 물이 이렇게 뿌연 까닭이 무엇이무니까?”



덕수자씨 고비의 문천림 각자
창릉천에 다리를 놓은 시주자 명단에 밥할머니 아들인 문천림의 이름이 보인다.

그러자 할머니는 북한산 노적봉(露積峰)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길 보시우. 지금 저 산에 조선군 수만 명이 주둔해 있는데 저것이 바로 조선군이 군량미를 쌓아둔 노적가리 라우. 마침 밥을 지을 시간이니 쌀 씻은 물이 흘러 내려 오는 것이 아니겠수?”

“그것이 사실이무니까?”

왜병 하나가 못 믿겠다는 듯 되물었어요.

그러자 밥할머니는 함지박을 내려놓고 보자기를 걸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수. 정 못 믿겠거든 여길 좀 보시구랴. 글썄, 내가 방금 전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더니 군사들이 ‘쌀이 많으니 굶주린 백성들에게도 나누어준다며 얼마든지 담아가라’고 하기에 이렇게 담아오는 길이라우. 그럼 불일들 보시구랴.”

11) 연서역(延曙驛) : 혹은 영서역(迎曙驛)이라고도 한다.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서발(西撥) 의 첫 번째 역사이다. 지금의 연신내 범서쇼핑 자리이다.

12) 창릉천(昌陵川) : 처음 이름은 덕수천(德水川)인데, 북한산에서 발원하여 창릉쪽으로 흘러 가기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

말을 마친 밥할머니는 종종걸음으로 총총히 사라졌어요. 적들은 할머니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더는 갈증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다투어 물을 마시고 끌고 왔던 말에게도 물을 먹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후 이 물을 마신 왜적들은 다들 배탈이 나서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 고통스러워 오만상을 다 찡그리는 것이었어요.

밥할머니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부총병 사대수는 이때를 놓칠세라 군사들을 독려하며 친히 선두에서 삼지창(三枝槍)을 들고 적을 찔러 공중에 던지면서 진군의 북을 치게 하니 적들은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공중에 날아가고 북소리가 땅을 흔들어서 혈로(血路)가 스스로 뚫리게 되었으며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서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는 모두가 밥할머니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으로 남편인 할아버지와 미리 짜고 한 일이었답니다.

왜적이 물러가자 할머니는 쉴 사이도 없이 도원수 권율(權慄)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적과 싸우기 위해 행주산성(幸州山城)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근 마을의 싸울 수



행주치마부대의 활약상 부분

있는 젊은 남녀를 모두 거느리고 남편과 함께 행주산성으로 들어갔어요.

벽제관 전투가 끝난지 겨우 2주 밖에 되지 않은 2월 12일, 행주산성(幸州山城)을 향해 진격해오는 왜적을 상대로 남자들은 관군(官軍)을 도와 활을 쏘며 싸웠고, 여인들은 밥할머니의 통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행주치마로 돌을 나르고 술에 물을 끓이기도 하였으며, 부상병을 치료하는가 하면 주먹밥을 만들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답니다.

다.¹³⁾

또한 평소에 불심(佛心)이 두터웠던 밥할머니는 많은 돈을 북한산 사찰에 희사(喜捨)하였으므로 주위로부터 ‘보살할머니’로도 불렸다고 해요.

이후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 때는 이미 80세의 고령이었는데, 아들 문천립(文天立)을 시켜 많은 군량미를 내놓기도 했답니다.¹⁴⁾ 그러자 인조대왕은 문천립의 공을 잊지 못해 그에게 종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위계(位階)를 내리고, 불광동(佛光洞)에 3일 같이의 땅을 하사했답니다. 또 별도로 성과 본관을 완산(完山)으로 바꾸게 하였다고 『남평문씨 충양공파보(南平文氏忠襄公派譜)』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종실(宗室)인 전주이씨(全州李氏)¹⁵⁾로 사성(賜姓)한 것이랍니다.

밥할머니의 사망년도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조반정을 한 해이거나 이로부터 몇 년 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3) 이형석저, 『임진전란사(壬辰戰亂史)』 중권(中卷), 신현실사, 1976, p.703 참조.

14) “…… 仁祖 天啓三年 反正之日 車駕行梁鐵坪 留宿三日 公出家藏之物 饋軍 教曰 仁祖 大異之 親臨家舍 問其凡節 公奏曰 此獻饗立物 皆老母朴氏所供 ……”

『남평문씨 충양공파보(忠襄公派譜)』 p.93쪽 참조.

15)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심양일기(瀋陽日記)』에 봉림대군을 배행한 인물 중에 사복양마(司僕養馬) 이천립(李天立)이 나오는데, 문천립(文天立)과 동일인(同一人)으로 추정된다.

밥할머니가 돌아가자 외아들인 문천립은 어머니를 불광동(佛光洞) 건좌(乾坐 : 서북방)를 등진 언덕에 있는 아버지 문옥형(文玉亨)의 묘에 합장을 하게 되요. 할머니의 사망소식을 들은 인조 임금님도 할머니에게 정경부인(貞敬夫人)을 봉하고 남편인 문옥형 할아버지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라는 높은 벼슬을 내리게 된답니다.¹⁶⁾ 이후 효종 9년(1658) 고양군 신원동에 덕명교(德明橋)를 가설할 때도 밥할머니의 아드님이신 문천립이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거금을 희사¹⁷⁾했답니다.



밥할머니상의 모델이던 원효암 여산신석

밥할머니 묘소는 1975년 후손들에 의해 화장(火葬)되기 전까지만 해도 불광동(佛光洞) 150번지(대성주택 자리)에 남아 있었으며, 재실(齋室)은 진관외동 186-2 폭포동(瀑布洞) 싱아굴에 있었으나 1957년 화재(火災)가 나서 전소(全燒)되었다고 해요.¹⁸⁾

오늘날 밥할머니 자손들은 그 많던 땅이 모두 밥할머니의 사패지(賜牌地)라고 믿고 있답니다.

이곳 토박이들은 매해 가을이면 수확한 곡물(穀物)을 ‘밥할머니 뭇’이라 하여 향아리에 담아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정월 보름날에 인근 마을 토박이 주민들이 햅쌀, 백설기, 햇과일 등을 차려놓고 제를 올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군요.

이처럼 밥할머니는 우리 은평 지역과 일부 인접 경기지역 주민들로부터 오랜 세월동안 밥할머니, 밥보시(布施)할머니, 팔죽할머니, 떡장수할머니, 고석(古石)할머니 등 여러 애칭으로 불리며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답니다.

밥할머니 석상은 원래 고양시 동산동 6번지 삼환석재 입구에 있었으나 1993년 통일로 확장공사로 인해 밥할머니 전적지(戰迹地)인 숫돌고개(礪石峴)가 있는 고양시 삼송동(三松洞) 도화공원(桃花公園)으로 옮겨다가, 다시 동산동 주민들의 요청으로 2005년 10월 현재의 위치인 고양시 동산동 창릉 모퉁이공원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답니다.

그해 11월 11일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밥할머니 보존위원회 차동규(車東奎·78) 위원장을 비롯한 노인 15명은 북한산이 보이는 밥 할머니 동상 앞에서

16) 『남평문씨 중앙공파보(南平文氏忠襄公派譜)』, pp.92-94 참조.

17) 밥할머니가 선행을 베푼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밥할머니의 호칭이 ‘밥보시(布施) 할머니’로도 불렸다는 사실과, 현재 고양시 삼송동 도화공원 안에 위치한 밥할머니 석상 주변에 ‘방백오후정일청덕홀민선정비(方伯吳侯挺一淸德恤民善政碑)’와 ‘고양덕수자씨 교비명(高陽德水慈氏橋碑銘)’과 ‘군수엄후찬청덕선정비(郡守嚴侯贊淸德善政碑)’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 주민들이 선행을 베푼 인물을 기려 세운 송덕비(頌德碑)와 함께 밥할머니 석상을 모신 것은 할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지역 주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밥할머니의 선행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로는 고양시 신원동에 있는 효종 9년(1658)에 건립한 ‘신원동 덕명교비(新院洞德明橋碑)’에 있는 돈을 희사(喜捨)한 사람 명단에 밥할머니 아들인 문천립(文天立)과 문명승(文命承), 문오정개(文惡丁介), 문유화(文劉化) 등의 이름이 올라 있어 당시 남평문씨 집안의 역할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양시·고양문화원 『고양금석문대관(高陽金石文大觀)』, 1998, pp.286-297 참조.

18) 이성영, 『재미있는 은평이야기』, 민미디어, pp.166-172.

주민 100여 명과 함께 할머니를 기리는 첫 제사를 지낸 후 해마다 제사를 받들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1일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그대 여기서 꼭읽구려! : 여기소(女妓沼)

진관내동 278번지에 있던 여기소(女妓沼)란 연못에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일명 무영탑)에 얽힌 석공 아사달과 그의 부인 아사녀에 얽힌 영지(影池) 전설과 닮은 다음과 같은 군교와 기생에 얽힌 연인(戀人)의 애절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조선 19대 임금인 숙종 37년(1711) 북한산성을 쌓을 때의 이야기라고 한다. 이 산성축조에는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노역에 동원되었다. 그해 4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워낙에 큰 공사라 공사에는 각종 중장비가 동원되었다. 당시 장비 중에는 오늘날의 기중기에 해당하는 녹로를 비롯하여 지렛대, 달구지 등이 있었다.

크고 어려운 공사라 공사 중 사고로 다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심지어 죽어나가는 경우도 가끔씩 볼 수 있었다. 당시 조선 팔도에서 동원된 인부들은 급히 동원되어 잠잘 집이 없어 대부분 노숙을 하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여기소 표석과 여기소 경로당 표석

남편을 이곳으로 보낸 가족들의 심정은 전쟁터로 남편을 보낸 것처럼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무사히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그때 공사에 동원된 한 군교(軍校 : 하사관)를 만나기 위해 시골로부터 젊은 기생 하나가 남장을 하고 천리 길을 걸어왔다. 그녀는 그곳을 지키던 한 군사에게 사랑하는 연인과의 면회를 요청했다.

“시골에서 남편을 만나려고 먼 길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제발 제 남편을 한번만 만나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닥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고는 싶지만 상부의 명이 워낙에 지엄한지라... 미안하구려. 돌아가 잠시 기다리면 곧 좋은 소식이갈 것이요. 닥처럼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사람이 된ديو.”

“알겠습니다, 나리. 정말 돌아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소.”

“그럼 수고하십시오, 나리.”

“고맙수, 곧 좋은 소식이 갈 거유.”

그러나 고향에 돌아가 기다리던 기생은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다시 공사장을 찾아 면회를 청했다. 이번에도 군사는 같은 말로 돌아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갈 것이라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면회를 거절한 까닭은 옛날 관습에 나라의 큰 공사에 남녀가 만나는 것은 부정이 든다고 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때는 가을에 접어든 9월 말경이었다. 그날 따라 하늘도 그녀의 슬픈 마음을 아는지 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주위의 나뭇잎은 비바람에 많이 떨어져 있었다.

상심한 그녀는 여기서 연못가에 앉아 연못을 내려다 보았다. 먼길을 걸어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지라 물위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여보, 서방님. 이 천천한 몸이 먼저 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오.”

말을 마친 그녀는 가냘픈 몸을 연못에 던졌다. 순간 물보라가 크게 일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보름 후인 10월 공사를 마친 군교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연못이 있던 인근에선 이미 소문이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여기소 옆 하천의 모습

그는 곧 마을 사람의 인도로 그 연못을 찾았다. 연못 뚝에는 그때까지도 기생의 짚신과 쓰고 온 패랭이 모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애인의 유품을 보자 북받쳐오르는 슬픔을 누리지 못하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탄식했다.

“그대 이 연못에서 죽어단 말이오, 이 연못에서...”

그래서 이후부터 이 연못을 그 군교가 탄식한 말을 따라서 너여(汝), 여기기(其), 못소(沼)라고 하여 ‘여기소(汝其沼)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주택지로 변하여 전설만 전해질 뿐 연못은 메워져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멀어져가고 있다. 여기소는 음이 변하여 인근 주민들은 예기수라고 부르고 있다.

오늘날 이 근처에는 이 연못의 이름을 딴 ‘여기소 슈퍼’와 여계소 노인정이 남아 있을 뿐 이 전설을 아는 노인도 거의 없다.

예전에는 흐린 날 비가 오는 가을밤이면 이곳으로부터 “여보! 여기소!”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만기요람(萬機要覽)』이란 책에는 이곳의 지명을 ‘여기소(女妓所)’라 기록하고 있어 실은 북한산성 축성에 동원된 군사나 장정들을 상대로 술이나 음식을 팔던 술집이나 음식점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 성능(聖能)스님이 편찬한 『북한지(北漢誌)』 「정계(定界)」 편에는 “ ‘여기연(女妓淵)’ 으로부터 지장리(紙匠里) 마분(馬墳)까지 표를 세우고, 어영청에 소속시켰다”고 되어 있어 ‘여기소’를 ‘여기연’으로 표기하고 있다.

(2) 은평의 문학과 예술인

1) 은평의 문학인

◎ 녹번이 초당(草堂)과 정지용(鄭芝溶) 시인

작고한 정지용 시인의 장남인 정구관(鄭求寬, 은평 향토사연구회 고문, 75)옹의 말에 의하면 시인은 48년부터 50년 7월까지 고양군 녹번리에 사셨다고 한다. 그곳은 지금의 은평구 녹번동 126-10호로서 불광동 국립보건원 맞은편 약 100미터 떨어진 곳인데 해방 후엔 그곳에 소 도축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다 선생은 기억자형의 초가집을 지었는데, 집의 구조는 안방과 건너방, 사랑채와 광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선생은 집 주변에다 딸기 등 과일과 채소를 가꾸며 두문불출(杜門不出) 집필에 전념했다고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난 후 8월 어느 날 설정식(薛貞植) 등 후배·제자·문인들과 함께 정치보위부에 나가 자수형식을 밟다가 잡혀 납북된 것이 자진월북으로 오인되어, 선생의 작품은 오랫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출간조차 되지 못했다.

선생의 죽음에 대해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셋째 아들 구인(求寅·70)씨는 95년 6월 북한 '통일신보'에 "아버지가 북으로 오던 중 경기도 동두천 소요산 기슭에서 미군 비행기의 기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인 정지용

그러나 이에 대해 남한에 살고 있는 구관(求寬)옹과 막내딸 구원(求苑)씨는 그동안 선생께서 평양교화소(교도소)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믿어왔다. 이것은 4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계광순(90년 사망)씨가 50년 12월 펴낸 회고록에서 "정시인이 우익활동 혐의로 50년 7월 북한군에 의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평양교화소로 이감돼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와 같은 감방을 썼다"고 해 남쪽가족들이 그렇게 믿어온 것이라고 한다. 桂씨는 그해 9월 23일 유엔군의 폭격 때 자신은 평양감옥을 탈출했지만 정시인은 사망했다고 주장했었다.

1982년 6월 유족과 원로 문인, 학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는 시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해금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조치 이후에 해금되어 비로소 선생의 시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선생의 대표작인 '향수'는 노래로도 작곡되어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선생이 사셨던 녹번리(綠攀里) 초당(草堂)은 9·28 수복 때 UN군의 장거리포에 맞아 불타버려 아쉽게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2003년 5월에는 선생께서 문화 관광부에서 지정한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어 대

대적인 학술 세미나와 행사를 한 바 있다.

본서에서는 녹번동에서 살던 시기인 1950년에 2월에 『문예』지에 발표한 ‘곡마단(曲馬團)’과 6월에 동지에 발표한 ‘사사조오수(四四調五首)’를 소개하고자 한다.

曲馬團

정지용

疎開터

눈 우에도

춤지 않은 바람

클라리오넬이 울고

북이 울고

천막이 후두둑거리고

旗가 날고

야릇이도 설고 흥청스러운 밤

말이 달리다

불대를 뚫고 넘고

말 우에

기집아이 뒤집고

물개

나팔 불고

그네 뛰는게 아니라

까아만 空中 눈부신 땅재주 !

甘藍 포기처럼 싱싱한

기집아이의 다리를 보았다

力技選手 팔장 낀채

외발 自轉車 타고

脫衣室에서 애기가 울었다

草綠 리본 斷髮머리 짜리가 드나들었다

원숭이

담배에 성냥을 키고

防寒帽 밑 外套 안에서

나는 四十年前 淒涼한 아이가 되어

내 열살보담

어른인

열여섯 살 난 딸 옆에 섰다

열길 솟대가 기집아이 발바닥 우에 돈다

솟대 꼭두에 사내 어린 아이가 가꾸로 섰다

가꾸로 선 아이 발 우에 접시가 돈다

솟대가 주춤 한다

접시가 뿔다 아슬 아슬

클라리오넬이 울고

복이 울고

가죽 잠바 입은 團長이

이웃 ! 이웃 ! 激勵한다

防寒帽 및 外套 안에서
危殆 千萬 나의 마흔아홉 해가
접시 따러 돈다 나는 拍手한다.

(《文藝》 7호, 1950. 2)

2) 은평의 문화인

◎ 역관 김득련(金得鍊)의 세계 일주

구한말의 역관(譯官)이자 외교관인 춘파(春坡) 김득련(金得鍊) 선생의 묘가 구과발
인공폭포 뒤쪽인 이말산(荊萊山) 우봉김씨 선영에 있다.

김득련(金得鍊 : 1852~1930)의 호는 춘파(春坡), 자는 윤구(允九)이다. 그는 1852
년 (철종 3) 4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1930년 향년 79세로 타계하였다.

김득련 선생은 건양 원년(建陽 元年) 1896년(고종 33) 4월 1일(음력 19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戴冠式)에 민영환 공사
를 수행해 2등 참서관으로 조선을 떠날 때부터 그
해 10월 21일(음력 9월 15일, 러시아력 9일) 돌아
오기까지의 노정(路程)을 기록한 『환구일기(環璆日
錄記)』와 『부아기정(赴俄記程)』, 한시집(漢詩集)
인 『환구음초(環璆吟艸)』를 기록하여 서구의 실정
과 문물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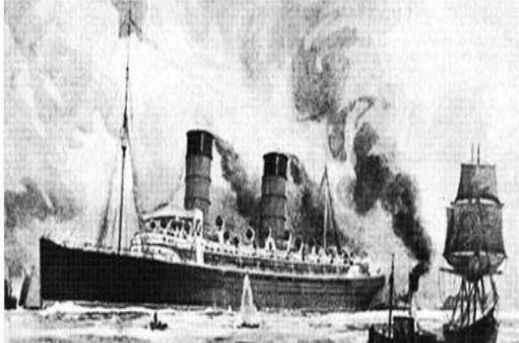
김득련 선생의 묘(은평구 구과발 우봉김씨
선영)

당시의 사행은 민영환을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
公使)로, 학부 협판 윤치호(尹致昊)를 수원(隨員)
으로, 3등 김득련(金得鍊)을 2등 참서관(參書官)으
로, 외부 주사 김도일(金道一)을 3등 참서관으로
삼아 파견하였는데, 해외파견 사절 중 최초로 세계일주를 하였다.

난생 처음 떠나는 유럽으로의 사행에서 4인 4색의 모습을 보인 것도 당연하다. 대
표적 사례 하나는 대관식이 거행되는 크렘린궁 우즈벤스키 성당 안으로 입장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다. 대관식이 거행될 성당은 작은 건물이라서 러시아 최고
의 귀족이나 외국 사절 외에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대관식이 거행되
는 성당에 입장할 때는 누구든 모자를 벗어야 했다. 사행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
다. 행사 때 갓을 벗고 맨 상투로 참석한다는 것은 조선의 법과 관습에 크게 어
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김득련은 우리의 전통 예에 따라 갓을 벗고는 대관식장에 들어 갈 수 없
다고 했다. 반면, 윤치호는 갓을 벗고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득련은 윤치

호가 서양오랑캐의 문화에 중독되었다고 ‘도끼눈’을 부릅떴고, 윤치호는 김득련이 중화사상에 중독되었다고 되받았다. 이때 망설이던 민영환은 김득련의 주장을 따라 결국 성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였다.¹⁹⁾ 대신 삼위일체 망루에서 대관식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은 결국 러시아 황제 대관식 참석 사행으로 파견되었는데 정작 러시아에 가서는 식장에도 들어가지 않은 셈이었다.



김득련이 뉴욕에서 타고 간 영국 상선 루카니아호

그런데 이 같은 갈등은 조선 사절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청국 사절도 그랬고, 터키와 페르시아 사절 등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 역시도 ‘모자’를 벗고 참석하겠다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²⁰⁾

한편 윤치호는 일행 중 한 사람인 ‘김씨(김득련으로 추정됨: 필자)가 사촌동생(?)에게 보낸 가신(家信)’을 그의 양해를 얻어 영역하고 이를 잡지에 소개한 바 있다. 윤치호에 따르면 ‘김득련’은 나이프와 포크의 사용, 서양 여성들과의 합석, 커피 마시기, 발레 구경, 테너 가수의 공연 듣기 등에서 겪은 일들을 두루 소개하면서 자신이 겪은 에피소드를 가신에 곁들였다.

동방예의지국의 나라 조선을 떠나 난생 처음 거대한 여객선에 몸을 싣고 보니 진기한 것 일색이로다. 이상한 색깔이지만, 눈 하나는 시원한 서양의 요조숙녀들, 어찌 그리 요란한 옷을 입고 있는가? 내 열골이 잘 생겨서일까, 아니면 남너칠세부동석을 몰라서일까, 거침없이 군자의 옆자리에 다가와 재잘대누나. 양반네 진지상에 웬 쇠스랑(포크)과 장도(나이프)는 등장하는가. 입술을 찢기지 않으면서 접시의 물건을 입에 넣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역이구나. 희고 눈 같은 것(설탕)이 달고 달기에 이번에도 눈같은 것(소금)을 듬뿍 떠서 찻종지에 넣으니 그 갈색 물(커피)은 너무 짜서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더라. 노르스름한 절편(치즈)은 맛도 향기도 고약하구나.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웬 신사가 목살에 힘줄이 뜯칠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테너) 모두들 그를 우러러 보더라. 서양에서 군자노릇 하기란 원래 저리 힘든가보다. 별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녀가 까치발을 하고 빙빙 돌며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발레), 가녀린 남자를 학대하다니, 서양군자들은 참으로 짐승이로구나.²¹⁾

이같이 요약되는 영문편지의 원본(한문 서간)은 문학적 묘미가 충분했을 것이다.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집안에 전해오는 많은 전적이 있었으나 일제하와 6·25 등을 거치면서 거의가 유실되고 말았다고 한다.

필자가 검토해 본 결과 다행이도 위의 문장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문이

필자가 검토해 본 결과 다행이도 위의 문장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문이

19) 李致源, 「俄館播遷期の 朝露交渉; 閔泳煥特使의 活動을 중심으로」(『윤병석교수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한국근대사논총간행위원회, 1990)

20) 『尹致昊日記』 4, pp.179~186.

21) 이민원, 「민영환의 유럽방문과 모스크바 외교」, 『死而不死 민영환』, 고려대박물관, 2005, 111쪽; 이 같은 형식의 에피소드는 김득련의 시문 곳곳에 잘 보인다.(金得鍊, 『環璠吟艸』 5쪽의 「喫洋餐戲題」, 18쪽의 「西國麗人行」 등)

『環瑯嶼』에 엮보인다. 따라서 그 영문 서간 내용의 원작자는 김득련이 틀림 없다고 추측된다.

(喫洋餐戲題)²²⁾

舖巾長卓食單開	긴 식탁 상보 위에 식단 펼치니
牛奶麵包當面堆	우유 빵이 눈 앞에 가득 쌓였네
羹肉魚蔬供次第	스프 고기 생선 야채 이어 나오고
刀叉匙櫟換輪回	번갈아 바뀌주는 칼 포크 접시
不時珍果登玻架	때 아닌 귀한 과일 쟁반에 담겨
各樣香膠滿瑪杯	술잔에는 온갖 술 향기 넘치네
終到珈琲茶進後	식사 끝에 내어 온 커피 한 잔 뒤
長廊散步吸煙來	긴 복도 거닐며 담배를 피네

(西國麗人行)²³⁾

西國由來重女人	서양에선 예로부터 여자가 우선
不嫌雜坐對佳賓	손님과 마주 앉아 꺼림이 없네
接脣握手情尤篤	입 맞추고 손 잡으니 정이 도타워
呼酒評茶話更新	술 청하고 차 평하며 끝없는 얘기
(중략)	
袒臂披胸禮最崇	어깨 가슴 드러내도 예절은 발라
有時承命入皇宮	때때로 부름 받아 황궁에 드네
胡蝶輕儇爭蹈舞	나비처럼 사뿐히 춤을 다투니
長裙拖地繡花叢	긴 치마 땅에 끌며 수를 놓는 듯

그러나 김득련은 이런 해학(諧謔)으로만 글을 마무리한 것은 아니다. 편지 끝에는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및 유럽 각 도시에서 목도한 신문물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가령 사행이 타고 가는 500 피트 길이의 기선은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찻주전자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기차로 시간 당 4~50km를 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기차를 이용한다면 가마꾼이나 말구종과 다투지 않고도 하루에 조선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닿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10일 걸리는 것을 오늘의 조선 사정을 감안 할 때 얼마나 빠른 지를 말하고 있다.

그 외 뉴욕의 현수교, 센트럴 파크 등을 소개하면서 호텔의 ‘느려 터진’ 웨이터 말고는 모두가 분주하고, 8층의 호텔에는 전화와 우체국, 서점, 신문국 등이 있어서 주사나 사동 없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의 여관은 미국의 호텔에 비하면

22) 金得鍊, 『環瑯嶼』 p.5.
23) 金得鍊, 『環瑯嶼』, pp.18~19.



조선 사행단 기념 사진(1896년 5월 25일, 모스크바에서) 앞줄 좌에서 김득련, 윤치호, 민영환, 파스콥, 플란손, 뒷줄은 김도일, 스타인, 손희영

가마 같은 수준이라고도 재미있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속히 눈을 뜨고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글을 맺으며, 어머니는 무어라고 하실지 궁금하다고 하고 있다.²⁴⁾ 이상과 같은 신문물에 관한 소개는 『환구음초』에서 두루 발견된다.²⁵⁾

(「俄列皇陵墓盡在一堂」)²⁶⁾

禮拜堂中葬國君 예배당에 모셔 둔
역대 황제들
鐵欄干裡玉爲墳 철 난간 속 옥관이
무덤이라네
若使堪輿論此地 조선의 풍수쟁이 이 걸 본다면
靑鳥秘訣盡虛文 풍수지리 모든 게 헛것 되겠지

위의 시는 러시아에서 성당 안에 조성된 역대 황제의 묘역을 보고 읊은 시이다. 페테르부르크의 황실 묘역에는 피터 대제로부터 예카테린 여제 등 러시아 역대 황제의 유해가 철 난간을 두른 안쪽의 석관에 안치되어 있다.²⁷⁾ 이를 보고 조선시대에 왕실은 물론 양반 가문에서 두루 극성했던 풍수지리의 허황함을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풍수가들을 가까이 했던 기록이 종종 보인다. 사실 조정의 상하 모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조선인은 풍수에 집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시대 분위기를 감안할 때 김득련의 시는 실용적 사고를 중시하던 중인 역관의 풍모를 잘 보여 준다. 다만 이런 시문을 귀국하여 일반에 유포시키기에 다소 우려되는 바는 없었는지, 그 시문집이 교토에서 출판된 것 자체도 흥미롭다.

☆ 김득련(金得鍊)

1852(철종 3)~1930. 조선 말기의 문신. 역관(譯官).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윤구(允九). 호는 춘파(春坡). 통문관지(通文館志)의 저자인 지남(指南)의 7대손이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재우(載禹)의 아들이다.

1873년(고종 10) 역과(譯科) 식년시(式年試)에 4등으로 합격하였으며, 이후 봉사(奉事), 교회(敎誨)·침정(僉正)을 지냈다. 1888년(고종 25) 박문국 주사(博文局 主事)

24) "Koreans abroad", The Korean Repository, Vol 4, 1897, pp.104~107.

25) 金得鍊, 『環瑠唵艸』, p.6.

26) 金得鍊, 『環瑠唵艸』, p. 24. 堪輿는 天地 혹은 風水家. 청오(靑鳥)는 漢의 靑鳥子 혹은 靑鳥先生. 『葬經』을 지었다. 그는 堪輿學에 밝아 堪輿之法을 靑鳥術이라고도 한다.

27) 1990년대에 와서 러시아의 한 지방 사학자에 의해 발굴된 니콜라이 2세와 그의 일가족 유골을 안치한 무덤이 그곳 성당 입구에 조성되었다.

가 되었다가 같은 해 부사과(副司果)로 옮겼다. 1890년(고종 27) 한학당하역관(漢學堂下譯官)으로 가자(加資)의 은전을 받았으며, 부호군(副護軍)에 올랐다가 이해 10월에 오위장(五衛將)으로 승차하였다. 또다시 부호군으로 옮겼다가 1894년(고종 31)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 의정부 참의(議政府參議)를 역임하고, 1895년(고종 32) 내각 참서관(內閣 參書官) 4등에 임용되었다.



성바실리 대성당 전경

1896년(고종 33) 4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戴冠式)에 부아특명전권공사(赴俄特命全權公使) 2등 참서관(參書官)과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되어 특명 전권공사 민영환(閔泳煥)을 수행하여 다녀왔다.

이때 인천을 떠나 상해(上海)·나가사키(長崎)·도쿄(東京)·벤쿠버·뉴욕·런던·베를린·바르샤바를 경유하여 모스크바에 여장을 풀었고, 다시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견학한 후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이해 10월 하순 귀국하였다. 이때의 사행 기록을 『환구일록(環璆日錄)』과 『부아기정(赴俄記程)』, 한시집(漢詩集)인 『환구음초(環璆吟艸)』로 기록했다. 여기에는 4월 1일 인천항을 떠날

때부터 그 해 10월 21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사행과정 중에 각 지역에서 견문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의 저서는 당시 러시아의 사회 문화와 서양문물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1902년(광무 6) 군부 대신관방원(軍部 大臣官房員)에 임용되었으며, 1907년(광무 11) 남양군수(南陽郡守)가 되었고, 1910년(융희 4년) 정3품에서 종2품으로 가자되는 은전을 입었다. (작성 : 朴相進) 출 전 :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참고문헌> 高宗實錄, 純宗實錄, 承政院日記, 牛峰金氏世譜, 環璆日記, 環璆吟艸, 赴俄記程, 海天秋帆

◎ 은평의 천재 풍속화가 신윤복

조선시대 한량과 기녀를 중심으로 한 남녀간의 낭만이나 애정을 다룬 그림을 주로 그린 풍속화가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이 은평 출신의 위대한 화가임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윤복(申潤福)의 본명은 가권(可權).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입부(笠父), 호는 혜원(蕙園)으로 1758년(영조 34)에 화원(畫員)이었던 신한평(申漢枰)의 아들로 태어났다.

신윤복 집안의 족보에 의하면 그는 세조 때의 공신인 신숙주(申叔舟:1417~1475)의 막내 동생인 귀래정(歸來亭) 신말주(申末舟)의 11대손이자 안협 현감(安峽縣監) 신공



갈현동 신윤복 묘 터 주변

섭(申公涉)의 9대손이다.

안협공 신공섭의 둘째 부인이 광주이씨(廣州李氏) 묘가 있던 갈현동 14번지(즉보에는 楊州延曙龜山里 라 되어 있음) 광주이씨 묘 위쪽에 공섭 이하 선대 묘가 있었고, 신윤복의 묘도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약 1만 여평쯤 되던 묘역은 일제시대 소화(昭和)연간인 1930년도에 매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2010년 문중에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 선산에다 설단(設壇)을 하였다.

부친 신한평(申漢枰)과 역시 도화서 화원으로, 특히 신한평은 영조와 정조의 어진 제작에 참여했으며 초상화뿐 아니라 산수화와 화조화에 뛰어났다.

신윤복은 집안의 대를 이어 어려서 그림에 입문해 화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전해질 뿐 거의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그가 남녀 간의 춘정을 즐겨 그린다는 이유로 도화서에서 쫓겨났다고 전한다.



신윤복 설단비(양주시 장흥)

신윤복은 김홍도(金弘道), 김득신(金得臣)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로 지칭된다. 그는 풍속화 외에도 남종화풍(南宗畫風)의 산수(山水)와 영모(翎毛) 등에 재능을 보였다. 일찍이 아버지의 화법을 익혔고, 선배 화원이자 당시 천재성을 인정받았던 김홍도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의 그림과 글씨를 보면 서체나 수파묘(水波描), 하엽준법(荷葉皴法) 등에서 김홍도의 화풍이 변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 아래에서도 신윤복은 자신의 화풍을 개척하여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는 독특한 풍속화를 발전시켰다.

신윤복은 소재 선정부터 필법과 구성, 색채 표현에서 김홍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김홍도가 소탈함과 익살이 깃든 서민층의 풍속을 다룬 것에 반해, 신윤복은 양반층의 풍류나 남녀 간의 연애, 향락적인 생활을 주로 그렸다. 김홍도는 선이 강하고 빠른 반면 신윤복의 선은 가늘고 유연하다. 김홍도는 주제를 살리기 위해 배경을 생략하는 구성을 즐겼지만, 신윤복은 오히려 치밀한 주변 배경 묘사로 주제를 부각시켰다. 채색도 엷은 갈색으로 되도록 절제한 김홍도에 비해 신윤복은 부드러운 담채 바탕에 빨강, 노랑, 파랑의 산뜻하고 또렷한 원색을 즐겨 사용했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무엇보다도 남녀의 애정행각을 다룬 에로틱한 표현의 춘의도가 많다. 이는 조선시대 성리학 이념의 폐쇄적 굴레에 반하는 획기적인 일로 그는 양반귀족들의 위선과 불륜을 대담하게 파헤치고 풍자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이고 은폐되었던 면을 화폭에 담아냈다. 또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존재감을 얻지 못했던 여성들을 작품에 등장시키고, 더욱이 조선시대 가장 천한 신분인 기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기방(妓房)이나 여속(女俗)에 대한 관심을 고도의 회화성으로 끌어올렸다.



신윤복의 일야정인

향락적인 소재에 몰입할 수 있었다.

신윤복이 이러한 풍속화를 그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이어지는 시대 변화와 다양한 후원자들의 도움이 컸다. 조선 후기 서민 지주들은 초기 상업화 과정에서 경제력을 축적하여 양반 못지않게 생활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전통 사대부와는 다른 취향을 가지고 풍속화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신윤복은 양반 사대부의 고리타분한 체면 문화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이 걷고자 하는 길을 걸었다. 더군다나 제도권에서 쫓겨나면서 더욱 퇴폐적이고

신윤복은 풍속화를 통해 시대를 고발하거나 비판하기보다 현실을 긍정하고 낭만적인 풍류와 해학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봉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녀 간의 성 풍속을 과감하게 화폭에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조선시대 사회풍속의 숨겨진 이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풍속을 도회적인 세련된 감각과 섬세한 필치로 형상화하여 조선시대 풍속화의 영역을 보다 다채롭게 넓혀 주었다. 그의 작품은 미술사 연구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생활사와 복식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 소장으로 국보 제135호로 지정된 『혜원풍속 화첩(혜원전신첩)』(18세기 말~19세기 초)이 전해진다.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것을 1930년 전형필(全鑾弼)이 대판(大阪)의 고미술상에서 구입해와 새로 표구하였다. 이때 오세창(吳世昌)이 표제와 발문을 썼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시를 통해 외국에도 잘 알려진 그림이다.



신윤복의 연소담청

심사 聞鐘尋寺>·<노중상봉 路中相逢>·<계변가화 溪邊佳話>·<정변야화 井邊夜話>·<삼추가연 三秋佳緣>·<표모봉심 漂母逢尋>·<야금모행 夜禁冒行>·<유곽쟁웅 遊廓爭雄>·<이승영기 尼僧迎妓>·<단오풍정 端午風情>·<홍루대주 紅樓待酒>·<이

화첩에는 <청금상련 聽琴賞蓮>·<기방무사 妓房無事>·<청루소일 靑樓消日>·<월하정인 月下情人>·<월야밀회 月夜密會>·<춘색만원 春色滿園>·<소년전홍 少年剪紅>·<주유청강 舟遊淸江>·<연소담청 年小踏青>·<상춘야흥 賞春野興>·<노상탁발 路上托鉢>·<납량만흥 納涼漫興>·<임하투호 林下投壺>·<무녀신무 巫女神舞>·<주막 酒幕>·<쌍검대무 雙劍對舞>·<휴기담풍 携妓踏風>·<쌍륙삼매 雙六三昧>·<문중

부담춘 鰥婦耽春> 등 30점이 실려 있다.

이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탄금(彈琴)》 등 6점으로 된 화첩 또한 명품이다. 아울러 초상기법으로 그린 《미인도》(19세기 초)는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낸 걸작으로 손꼽힌다.

◎ 한석봉과 쌍벽을 이룬 명필가 이해룡

위치 : 은평구 진관내동 산 9번지

경천군(慶川君) 이해룡(李海龍)은 조선 선조 때의 이름난 통역관(上通事)이자 사자관(寫字官)이다. 자는 해수(海叟), 호는 북악(北嶽)이다.

일찍이 사자관으로서 통신사 황윤길(黃允吉)을 따라 일본에 가 많은 필적(筆跡)을 남겼다.



경천군 이해룡 묘 전경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역관으로 일본과의 화평 교섭에 관여하였다.

1595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거쳐, 1602년에는 사삼시 주부가 되었고,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어 경천군(慶川君)에 봉해졌다.

해서(楷書)를 특히 잘 썼으며, 당시의 대가인 북저(北渚) 김류(金瑬)는 그를 평해 석봉(石峰) 한호(韓濩)에 필적하는 명필이라고 격찬하였다. 당시 임금인

선조도 그의 글씨를 무척 애지중지하였다고 한다.

『역경(易經)』을 써서 바친 일로 왕의 격찬을 받고, 은상(恩賞)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그 서체가 그야말로 절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부장되어 능침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필적으로는 선조에게 써서 올렸던 천자문(千字文)과,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조선에 원병으로 나왔던 명나라 장수 양호(楊鎬)의 활약상을 그린 '사현(沙峴)의 양호거사비(楊鎬去思碑 : 종로구 행촌동 171번지 대신고교 교정)' 보물 제813호인 창덕궁 인정문(仁政門) 편액이 남아 있다.

현재 경기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78번지에 있는 그의 생가는 1985년 9월 20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3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로 인물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조선조 중인 계급 출신 중 이름난 이들의 사적을 기록한 유재건(劉在建)의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에 실린 이해룡(李海龍) 기사를 이곳에 옮겨본다.

북악(北嶽) 이해룡(李海龍)

「이북악(李北嶽) 해룡(海龍)의 자는 해수(海叟)이다. 글씨를 잘 써서 한석봉(韓石蜂)과 이름이 가지런하였다. 선조조 때 왕명에 의하여 천자문(千字文)을 써서 올렸는데, 지그마지 내부(內部)에 간직해 있다.

여러 자손들 집에 이 필본(筆本)이 없더니 내가 일찍이 보니, 그의 후손 동현(東鉉)이 그것을 모사(模寫)하여 그 집에 수장(收藏)한 것이 있었다.

그의 자손은 10 여대를 서로 이어 사자관(寫字官)이 되었으며, 매우 번성하다.」

◎ 경천군사패금송비(慶川君賜牌禁松碑)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산25, 진관동 273-2

지정일 : 2014년 2월 20일

경천군 사패금송비는 진관동 중골 마을 내시묘역길 입구에서 북한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소로를 따라 약 100m 정도 내려가면 능선과 능선 사이에 소곡부가 나온다. 이 소곡부의 소로 위에 송금물침비(松禁勿侵碑) 1기(진관동 산 25)가 서 있다.

이 비석은 경주이씨 북악파(北嶽派) 파조로 조선 선조조(宣祖朝)에 통역관(通譯官)이자 사자관(寫字官)으로써 공을 세워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어 국가로부터 이 지역에 땅을 하사받은 경천군(慶川君) 이해룡(李海龍)의 사패지(賜牌地) 내에서 벌목(伐木)을 금지하는 금표비(禁標碑)이다. 양식은 圓首形 2면비로 묘역의 입구에 세웠다.



왼 송금비 전면 : 송금(松禁)이라고 표기

오 금송비 전면 : 금송(禁松)이라고 표기

비신 전면에는 「慶川君 賜牌定界內 松禁勿侵碑(경천군 사패정계내 송금물침비)」, 후면에는 「萬曆四十二年甲寅十月日立(만력사십이년갑인십월일립)」(1614년, 광해군 6)이라 새겼다.

한편 진관동 273-2에는 2번째 경천군 사패금송비가 발견되어 소재확인 중에 있는데, 비신 전면에 「慶川君 賜牌定界內 禁松勿侵碑(경천군 사패정계내 금송물침비)」라 적혀 있어 송금(松禁)이 금송(禁松)으로 2자의 표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조선의 서화가(書畫家) 임득명(林得明)

임득명(林得明) : 1767(영조 43)~1822(순조 22).

조선 후기의 서화가(書畫家)이자 여항시인(閔巷 詩人)인 임득명의 유허비(遺墟碑)가 불광동 한국기독교 수양관 안에 있다. 임득명의 본관은 회진(會津). 자는 자도(子道), 호는 송월헌(松月軒)이다. 『옥계사(玉溪社)』란 시화첩(詩畫帖)에 의하면 그는 1767년(영조 43) 1월 19일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회진임씨 족보에는 1822년(순조 22)에 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관직은 규장각(奎章閣) 서리(書吏)를 지냈다.

유재건(劉在健)이 지은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에 의하면, ‘시부서화(詩賦書畫)를 잘 하고, 전서(篆書)와 예서(隸書)에 뛰어났다고 한다. 또 옥계사(玉溪社)의 시첩 머리에 그림과 전서로 그려 넣고 시로 화답하여 삼절(三絶)로 불렸으며, 산수화(山水畵)를 즐겨 그렸다고 되어 있다.



양림동 임득명 추모비

최북(崔北)·임희지(林熙之) 등과 함께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한 구성원이었으며, 그림은 정선(鄭 欽)의 진경산수화법을 배웠다고 전한다.

유작으로는 서울에서 의주까지 실경 6폭을 담은 <서행일천리 西行一千里> (개인 소장)라는 장권(長卷)의 서화축(書畫軸)이 대표작으로 꼽히며, 종이에 담채로 그린 <고정관폭도 孤亭觀瀑圖> (개인 소장)를 비롯하여 <송월헌화첩 松月軒畵帖> (개인 소장) 등이 전한다. 『풍요삼선(風謠三選)』에 그의 시 16수가 전하며, 문집으로는 『송월만록(松月漫錄)』이 있다. 『송월만록』 권1에는 시 307수, 권2에는 시 271수, 권3에는 시 236수, 권4에는 시 282수, 권5에는 시 17수, 권6에는 시 70수도합 1,133수의 시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임득명의 가고보일

과거 수양관 안에는 회진임씨 4세인 절충장군(折衝將軍) 함(咸), 5세인 현신교위(顯信校尉) 효립(孝立 : 1612-1676), 6세인 중부 주부(中部主簿)를 지낸 여항시인 춘양(春養), 7세인 여항시인 성원(聲遠 : 득명의 조부), 8세인 필창(必昌 : 득명의 부친), 9세인 득명(得明)의 묘가 있었으나, 후손이 묘지 일대의 땅을 수양관 측에 매각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감에 따라 현재는 그곳에 임득명 추모비(2001년 세움)만을 세워 보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朴相進)